



interview

## ‘현재’ 로서의 놀이와 학습의 공간

열린 도서관 이끄는 성포초등학교 최장명 교장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인격 형성에 학교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가정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끌어내어 운영해 나가고 있는 안산시 성포초등학교의 사례는 주목해 볼 만하다.

“1999년도에 부임해서 도서관 설비자금모금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서관 구축 계획과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자금을 모았습니다. 2000년 3월쯤 식당 자리를 개조해 도서관으로 만들기로 하고 계약직 사서교사를 배치했죠. 모범 도서관을 견학하고 교육청, 시청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부족한 재원을 지원받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상록수 문화 사랑회’에서 도서와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장명 교장의 설명처럼 ‘상록수 문화 사랑회’라는 지역단체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성포초등학교 도서관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 학교의 현재 보유 장서는 1600여 권 정도이고 전자책은 800여 권이 비치되어 있다. 학생수 대비로 치면 다른 학교보다 많은 수치이다.

가구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배려

식당 자리를 개보수해서 만든 도서관은 출입이 쉬운 학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책걸상도 다양하다. 동그란 형태, 사다리꼴 형태 등 아이들이 싫증나지 않도록 가구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배려를 했다.

“어릴 때 아랫마을 사는 부자 형네 집에서 책을 두세 권씩 빌려서 읽었어요. 아버지가 벗단 쌓으라고 일을 시키시면 얼른 끝내고 책 읽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볼 수 있는 형편인 아이들이 얼마 없었죠. 우리 학교도서관 자체가 신기한 세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도서관이 없는 게 신기한 세대지요.”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도서관을 활용해 학습 프로그램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독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도서관 설립 이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성포초등학교에서는 현재 학부모 명예교사들이 하루에 두세 명씩 도서 대출 반납 정리, 독서토론,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방학 동안에도 독서교실, 영화 상영, 음악 감상실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또한 동화구연 대회, 독서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도서관을 편하고 즐겁게 드나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서관은 열린 교육을 구현하는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교실입니다.” 최장명 교장은 앞으로 장서 수를 늘리고 e-book이라든가 CD 등 전자 자료를 더 구비할 계획이다. 서가도 아이들 키 높이에 맞는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고, 책을 읽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다. 어린이를 위한 맞춤도서관을 만들어 스스로 도서관을 찾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도서관 하면 시험 공부하러 가는 곳, ‘현재’는 담보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숨죽이고 공부만 하는, 폐쇄공간이었다. 숨막히고 따분한 정지화면으로만 기억되는 그곳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엔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방학숙제도 하고...,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노는 ‘현재’의 공간이다. **이문**

『도서관은 열린 교육을 구현하는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교실입니다.』

양선희기자